한국 홈런왕 박병호 빅리그 입성

“우승하러 왔다”

미네소타 트윈스와 5년 최대 1800만 달러 계약

年 360만달러…현지 언론 ‘500만~1000만’ 밑돌아

박병호(29)가 미네소타 트윈스와 5년 최대 1800만 달러(약 208억4400만원)의 조건에 계약하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 꿈을 이뤘다.

현지 언론이 예상한 ‘최소 연평균 5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박병호는 일단 ‘빅리그 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2일(한국시간) “미네소타가 한국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 출신 박병호와 ‘4년 1200만 달러, 5년째 구단 옵션이 낀 180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MLB닷컴은 “박병호는 4년 1200만 달러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최대 금액은 1800만 달러”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275만 달러를, 2018·2019년에는 300만 달러를 수령한다. 미네소타가 5년째 구단 옵션을 행사하면 2020년 박병호에게 650만 달러를 줘야 한다. 5년째 박병호와 계약하지 않으면 바이아웃(계약포기 위약금) 금액 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병호는 일단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150만 달러를 보장받고, 2020년에 미네소타에서 뛰지 않으면 바이아웃 조항에 따라 50만 달러를 받아 1200만 달러를 채운다. 2020년에도 미네소타에 남으면 앞서 4년 동안 받은 1150만 달러에 650만 달러 연봉을 추가로 받아 총 1800만 달러를 손에 넣는다.

미네소타는 지난달 포스팅(비공개 경쟁 입찰)에 나서 최고 응찰액 1285만 달러를 적어내 박병호와의 독점 교섭권을 얻었다. 현지 언론은 ‘연평균 500만~1000만 달러’를 예상했다. 그러나 박병호는 5년 기준으로 연평균 360만 달러, 4년 기준 300만 달러의 예상보다 다소 낮은 금액에 사인했다. 지난해 강정호는 포스팅 응찰액 500만2015 달러를 제시한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5년 최대 10625만 달러의 조건에 계약했다. 일반적으로 연봉은 포스팅 응찰액에 비례한다. 그러나 박병호는 강정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포스팅 응찰액을 기록하고도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박병호는 지난달 29일 미네소타로 출국하며 “언론이 보도하고 팬들께서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낮은 금액이라고 들었다”며 “그래도 세계 최고 선수가 뛰는 메이저리그에 입성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기분 좋게 사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병호는 ‘메이저리그 입성’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예상보다 적은 연봉을 받아들였다. 물론 연평균 300만 달러도 ‘기록’을 만드는 금액이다. 박병호는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아시아 야수 중에서는 스즈키 이치로(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계약을 했다. 2011년 포스팅에 나선 이치로는 1312만5000달러를 제시한 시애틀 매리너스와 연봉 협상을 했고 3년 최대 1400만 달러에 계약했다.

박병호는 한국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선수 중에서도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기록하며 계약을 마쳤다. 류현진은 2013시즌을 앞두고 6년 3600만 달러에 사인했다. 박병호가 계획대로 메이저리그 타석에 서면 박찬호, 김병현, 서재응, 이상훈, 구대성, 최희섭, 추신수, 류현진, 강정호 등에 이어 빅리그에 선 15번째 한국 선수가 된다. /연합뉴스

AL 중부지구 2위 25년만에 우승 도전

미네소타 트윈스는 어떤 팀?

2일 한국의 홈런왕 박병호와 계약한 미네소타 트윈스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중부지구에 속한 팀이다. 미네소타주는 미국 중부 중에서도 북쪽으로 캐나다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

강정호가 뛰는 피츠버그 파이리츠도 중부에 있지만 피츠버그가 내셔널리그로 구분되는 반면 미네소타는 아메리칸리그에 속해 있다. 내셔널리그와 달리 아메리칸리그는 지명타자 제도를 채택한다. 미네소타 구단이 박병호를 지명타자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네소타는 올 시즌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에서 83승 79패(승률 0.512)로 2위를 차지했다. 1위 캔자스시티 로열스(95승 67패)와는 12경기 차였다. 그러나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밀려 포스트시즌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창단은 19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워싱턴 세네터스라는 이름이었지만, 1961년 연고지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로 이전하면서 이름도 미네소타 트윈스로 변경했다.

월드시리즈(WS) 우승은 총 세 차례 경험했다. 세네터스 시절인 1924년과 1987년, 미네소타로 바꾼 이후에는 1991년에 정상에 올랐다. 내년 시즌에 우승하면 25년 만에 우승 반지를 끼게 된다.

중부지구 우승은 10번했고, 이 가운데 6번은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했다. 그러나 번번이 리그 챔피언십시리즈 등에서 고배를 마셨다. 아메리칸 리그 우승은 6번했지만, 모두 1991년 이전이었다. 2011년과 2014년 사이에는 세 차례나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미네소타는 2011년 일본인 내야수 니시오카 쓰요시를 영입한 적이 있다. 당시 532만9000달러의 포스팅 비용을 내고, 3년 925만 달러에 계약했다. 이후 니시오카는 2011년부터 2년간 71경기에서 홈런 없이 타율 0.215, 20타점 등으로 부진했고,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일본으로 돌아갔다.

미네소타는 박병호에게 우타 거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미네소타의 간판 타자는 조 마우어다. 마우어의 수비 포지션은 박병호와 같은 1루수이기 때문에 박병호가 지명타자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마우어가 최근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이 변수다. /연합뉴스

‘필’ 만큼만 해 다오

KIA, 용병 3인방 계약

‘호랑이 군단’의 2016시즌을 이끌 외국인 선수 3인방이 확정됐다. ‘효자 외국인 선수’ 브렛 필(31)이 3년 연속 타이거즈 선수로 뛰고, 헥터 노에시(28)와 지크 스프루일(26)이 마운드에 새로 가세한다.

KIA가 2일 외국인 선수 3명과의 계약을 마무리했다. 올 시즌 143경기에 출전해 22홈런, 101타점, 81득점, 타율 0.325를 기록하면서 팀에서 유일하게 야수 골든 글러브 후보에 이름을 올린 브렛 필은 총액 90만 달러에 재계약을 마치면서 다시 KIA 유니폼을 입는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우완 정통파 헥터 노에시는 총액 170만 달러에 새 식구가 됐다. 헥터 노에시는 신장 192cm·체중 93kg의 체격을 지니고 있으며 최고 155㎞의 직구가 강점이다. 또 체인지업과 커브 제구력이 좋고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올 시즌 시카고 화이트삭스 소속으로 뛴 헥터 노에시는 선발과 중간계투로 10경기에 출장해 4패 평균자책점 6.89를 기록하는 등 메이저리그에서 5시즌을 보냈다. 통산 107경기 성적은 12승 31패 평균자책점 5.31이다. 마이너리그에서는 9시즌 동안 활동하며 35승 28패 평균자책점 3.71의 기록을 남겼다.

KIA는 미국 출신의 우완 정통파 지크 스프루일과도 총액 7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신장 195cm, 체중 90kg의 체격을 지닌 지크 스프루일은 메이저리그에서 2시즌, 마이너리그에서 8시즌을 뛰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12경기에 출장해 1승 3패 평균자책점 4.24, 마이너리그에서는 8시즌 동안 191경기에서 52승 60패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보스턴 레드삭스 산하 포터킷 레드삭스(트리플A) 소속으로 35경기에 등판해 5승 10패 평균자책점 3.94를 기록했다.

지크 스프루일은 큰 키에서 내리꽂는 150km 초중반대의 직구를 바탕으로 투심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등 변화구를 구사하며, 투구밸런스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크 스프루일은 지난달 대만에서 열린 2015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12 예선에서 미국 선발로 출전, 한국 타자들을 상대하기도 했다. 이 경기에서 지크 스프루일은 6이닝 3피안타 7탈삼진 2볼넷 무실점의 호투를 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여울기자 wool@

브렛 필
올해 22홈런·101타점·3할대
3년 연속 타이거즈 유니폼

헥터 노에시
도미니카 출신·직구 155㎞
제구력·경기 운영 능력 탁월

지크 스프루일
美 출신 우완·투구밸런스 좋아
WBSC 한국전 6이닝 무실점

헥터 노에시

지크 스프루일

한화, 투수 로저스와 재계약

한화 이글스가 ‘괴물 투수’ 에스밀 로저스(30)와 KBO리그 외국인 선수 역대 최고액인 190만 달러(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17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

한화는 2일 “로저스가 내년에도 한화에서 뛴다”고 재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로저스는 올해 8월 1일 쉐인 유먼의 대체 선수로 한국 무대에 등장해 10경기 6승 2패 평균자책점 2.97을 기록하였다. 시속 150㎞대 중반의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선보이며 완투 4차례, 완봉승 3차례를 기록하는 괴력을 선보였다.

로저스의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은 210경기(454이닝) 19승 22패 평균자책점 5.59다. 이 정도 경력의 외국인 투수는 한국 무대에도 자주 등장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동일 시즌에 빅리그 마운드에 섰던 투수가 대체선수로 한국 팀과 계약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한화는 올 시즌 144경기 중 93경기를 치른 8월 1일에 로저스와 계약하면서 거액 70만 달러를 안겼다. 미국 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에 따르면 로저스의 개인 통산 직구 평균 구속을 시속 152㎞(94.2마일)이고 최고 구속은 시속 159㎞(98.9마일)이다. 올 시즌 직구 평균 구속은 시속 150㎞(93.4마일), 최고 구속은 시속 154㎞(95.7마일)이었다.

로저스는 한국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한껏 드러냈고 지난해 더스틴 니퍼트가 두산 베어스와 계약하며 기록한 150만 달러를 넘어 역대 외국인 최대 규모 계약을 만들어냈다. 로저스에게 일본 구단이 접근한 것도 알려져 한화는 로저스에 더 공을 들였고 결국 계약에 성공했다. /연합뉴스